

무용전공 대학생의 자기관리, 무용열정, 공연 자신감의 관계

최재희* · 이화석**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강수진과 아메리칸 발레시어터의 줄리 켄트는 불혹을 넘긴 나이임에도 명불허전의 기량을 보여주는데, 이는 두 예술가의 프로페셔널한 자기관리가 낳은 이례적인 사례라고 생각 한다”¹⁾ “줄리 켄트는 20세기를 빛낸 10대 발레리나 중 한명으로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45세의 발레리나로 임신한 상태에서도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출산 3개월 만에 전막발레에 출연할 만큼 자기관리도 뛰어난 편이다”²⁾ 줄리 켄트는 “그녀는 전설이다” 라는 수식어와 함께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 권위의 그리스 헬라스 무용대회 현대무용 부분에서 최연소로 입상한 이도희양 담임교사는 “이양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

* 주저자,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겸임교수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sedona98@hanmail.net

1) 문훈숙(2012.8.24), “무용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경제, MK뉴스.

2) 최민우(2013.4.11), “20세기를 빛낸 발레리나 톱10”, 중앙일보, 뉴스클럽.

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학생이었다”, “성실한 학교생활과 철저한 자기관리가 우수한 성적의 발판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³⁾ 또한 ‘2013년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김연아 선수가 2년 공백을 완벽히 떨친 비결은 꾸준한 자기관리와 마음먹으면 반드시 해내는 강한 정신력이 한몫’⁴⁾이라고 관계자는 보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세계적인 수준의 무용수나 운동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들이 성취한 기량과 성적이 자기관리와 자신감에서 기인되며, 두 변인간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허정훈, 유진⁵⁾은 운동선수들이 자기관리를 잘하였을 때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긍정적인 기분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소연⁶⁾에 의하면 자기관리는 운동선수나 직업무용수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으로서 개인이 통제하거나 변화시키고 싶은 특정한 행동과 함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자율성을 키워줄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관리란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외부의 어떤 영향 없이 개인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으로서⁷⁾ 최근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자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되어지는데, 특히 심리학분야와 교육학분야 그리고 신체활동과 관련된 분야들에서 구축되는 이론들은 자기관리의 내용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⁸⁾ 이와 관련하여 김은진⁹⁾은 최고의 무용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통제하고 꾸준한 훈련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자기관리

3) 안현주(2012.7.5), “광주예고 이도희, 국제무용대회 최연소 입상” NEWSis.

4) 성진혁(2013.3.18), “2년 공백 완벽히 떨친 비결은”, 조선일보.

5) 허정훈, 유진(2004),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기관리 전략: 질적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5(3), p. 29.

6) 정소연(2006), 프로무용수위 자기관리 인식에 따른 공연성태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p. 3.

7) Karoly, P.(1980), Person variable in therapeutic chance and development. In P. Karoly, & J. J. Steffen(Eds.), Improving the long-term effect of psychotherapy(pp. 195-261), New York: Gardner Press.

8) 최정자, 김형남, 심현화(2012), 무용심리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무용전공대학생의 자기관리 및 심리기술 효과, 『한국무용과학회지』 26(1), p.53.

9) 김은진(2013), 무용전공고등학생들의 무용열정수준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관리,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p. 2.

를 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을 스스로 조절하고 관리하며 대처하기 위한 자기관리는 전문 무용수나 무용 전공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하였다.

무용 상황에서의 자신감은 무용공연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마음 상태나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무용공연이나 성과에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보고되었다.¹⁰⁾ 스포츠 상황에서도 선수들의 자기관리는 선수들의 운동수행과 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성공적인 자기관리는 긍정적인 기분과 높은 자신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¹¹⁾ 이러한 결과는 무용분야에서 자기관리와 공연자신감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권영균¹²⁾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맥락으로 무용수들의 자기관리는 공연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변인이 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이외에도 이보슬¹³⁾은 무용공연상황에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은 자신의 심리상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며, 개인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자기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무용수행시 부상으로부터 예방, 기술의 발달, 스트레스, 불안, 긴장감, 자신감 결여 등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들을 바람직하게 대처하고 성공적인 무용수행을 위한 방법이 자기관리임을 밝히며, 자기관리와 공연자신감의 간·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¹⁴⁾ 이에 따라 자기관리가 성

10) 김영미, 김양근(2010), 부모의 기대와 경제적 지원이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무용수행능력과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22(1): 1-20. 이효민, 김선정(2009), 무용전공 대학생의 전문화수준이 무용자신감과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1(1): 169-189.

11) 문한식, 박진성(2008), 양궁선수들의 자기관리와 자신감과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1): 19-32. 조현익, 윤병민, 소영호(2008), 고교 불링선수의 자기관리가 자신감 및 경쟁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4): 21-34. 한태준(2008), 레슬링선수의 성취목표지향성, 자기관리 및 스포츠자신감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4): 35-52. 허용, 손준호, 정찬수(2011), 대학씨름선수의 자기관리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코칭능력개발지』 13(2): 23-30.

12) 권영균(2010), 무용전공자의 자기관리와 신체적 자기지각과 자기관리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p. 3.

13) 이보슬(2011), 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의 성공과 실패 지각요인탐색, 『예술교육연구』 9(3): 45-67.

공적인 무용공연 수행을 위한 자신감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인임이 분명하다.

한편 열정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좋아하는 활동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적극적인 성향이다.¹⁵⁾ 무용은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미적 가치관을 나타내는 심신의 통합적인 활동으로서 신체움직임과 함께 내면의 심리적인 과정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¹⁶⁾ 무용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열정이 존재한다. 무용열정은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되며, 조화열정을 가진 개인은 열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무용 이외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강박열정을 가진 개인은 무용 이외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용에 깊이 빠져드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용수 개인이 지닌 무용열정은 무용수행에 관여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용수들의 내적 심리상태에 따라 실제 무용공연과 수행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¹⁷⁾ 따라서 개인의 내면화과정에서 발달되는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의 양상은 인간의 인지적 행동과 정서적 행동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며¹⁸⁾ 무용수행과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그영향력은 매우 광

14) 길진영(2012), 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학생들의 자기관리와 학습몰입과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권영균, 이동현, 이지향(2010), 무용전공자의 자기관리와 신체적자기지각 및 공연자신감 구조모형검증, 『한국체육학회지』 49(6): 149-160. 노정식(2010), 무용수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관리, 공연불안 및 공연몰입의 관계,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15) Vallerand, R. J., Blanchard, C. M., Mageau, G. A., Koestner, R., Ratelle, C. F., Leonard, M., Gagne, M., & Marsolais, J. (2003). Les passion de l'ame: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4), pp. 756-767.

16) 장귀옥(2002), 무용수들의 신체적 자기-지각과 정신건강 프로파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p. 5.

17) 유진, 정꽃님(2008), 무용열정의 이원론적 모형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1), pp. 163-175.

18) 김혜정(2011), 무용전공 대학생들에 신명경험이 무용열정과 자기결정성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남초아(2011), 무용전공자의 신체상이 열정과 정서상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박세미(2011), 대학생들의 무용 멘토링이 무용열정과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임낙철, 김석일(2009), 지체장애선수의 정서, 열정, 시합전략, 『한국체육학회지』 20(4), pp. 111-127.

범위하게 작용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기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무용수들의 자기관리는 무용열정과 공연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또한 무용열정은 자기관리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공연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경로로 존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무용수행을 위한 공연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관리와 무용열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자기관리와 무용열정 그리고 공연자신감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세 변인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공연수행에 바람직한 참여방법을 모색하고 지도자들에게 성공적인 무용수행 능력을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 대학생의 자기관리가 무용열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열정이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무용전공 대학생의 자기관리가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4년제 대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1-4학년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2012년 11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표집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50명을 표집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무응답, 동일한 응답이 5문항 이상 반복되거나, 5문항 이상 응답하지 않은 28명의 표본은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자료 분석에 최종적으로 이용된 인원은 322명으로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www.kci.go.kr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 특성 | 수준 | 빈도(명) | 비율(%) |
|------|-----------|-------|-------|
| 성별 | 남 | 45 | 14.0 |
| | 여 | 277 | 86.0 |
| 학년 | 1학년 | 58 | 18.0 |
| | 2학년 | 57 | 17.7 |
| | 3학년 | 126 | 39.1 |
| | 4학년 | 81 | 25.2 |
| 장르 | 발레 | 42 | 13.0 |
| | 한국무용 | 90 | 28.0 |
| | 현대무용 | 116 | 36.0 |
| | 실용무용 | 74 | 23.0 |
| 무용경력 | 6년미만 | 175 | 54.3 |
| | 6년~10년미만 | 103 | 32 |
| | 10년~15년미만 | 34 | 10.6 |
| | 15년이상 | 10 | 3.1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개인적 특성, 자기관리, 무용 열정, 공연자신감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지의 요인별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기관리

자기관리에 대한 설문지는 허정훈, 김병준, 유진¹⁹⁾을 기초로 이영환²⁰⁾이 연구하여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문항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40이하의 공통성을 보인 1문항이 삭제되어 9문항이 추출되었다. 누

19) 허정훈, 김병준, 유진(2001), 대학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 전략: 평소연습과 시합상황의 비교. 『한국체육학회지』 40(1), pp. 187-198.

20) 이영환(2009), 체육계열 지방생의 성취목표 성향이 자기관리와 스포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표 2〉 자기관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요인 | 문항 | 요인1 | 요인2 | 요인3 |
|------|----|-------|-------|-------|
| 대인관리 | 7 | .893 | .053 | .074 |
| | 1 | .879 | .103 | .103 |
| | 8 | .651 | .393 | .028 |
| 훈련관리 | 3 | -.024 | .835 | .131 |
| | 6 | .227 | .757 | .063 |
| | 4 | .204 | .743 | .077 |
| 생활관리 | 5 | .028 | .164 | .791 |
| | 9 | .015 | -.102 | .769 |
| | 2 | .153 | .220 | .649 |
| 아이겐 | | 2.11 | 2.07 | 1.68 |
| 설명분산 | | 23.46 | 23.05 | 18.69 |
| 누적 | | 23.46 | 46.52 | 65.22 |
| 신뢰도 | | .782 | .727 | .653 |

적 분산율은 65.2%, α 값은 대인관리 .782, 훈련관리 .727, 생활관리 .653으로 양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선택된 각 측정항목들에 대한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X^2=32,920(df=11, p=.001)$, RMR=.031, NFI=.940 RFI=.885 GFI=.973, IFI=.959, TLI=.920, CFI=.958, RMSEA=.079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수용할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무용 열정

무용열정에 대한 설문지는 Vallerand²¹⁾이 개발하고 강영국,²²⁾ 전예화²³⁾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주제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이 설문문항은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40이하의 공통성을 보인 2문항이 삭제되어 11문항이 추출되었다. 누적분산율은 65.4%, α 값은 강박열정 .890, 조화열정 .854로 양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선택된 각 측정항목들에 대한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X^2=25.238(df=13, p=.021)$, RMR=.027, NFI=.978 RFI=.965 GFI=.977, IFI

〈표 3〉 무용열정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요인 | 문항 | 요인1 | 요인2 |
|------|----|-------|-------|
| 강박열정 | 12 | .848 | .040 |
| | 10 | .785 | .305 |
| | 11 | .776 | .230 |
| | 9 | .770 | .310 |
| | 13 | .751 | .062 |
| | 8 | .713 | .322 |
| 조화열정 | 1 | .116 | .845 |
| | 3 | .054 | .839 |
| | 2 | .203 | .829 |
| | 4 | .343 | .670 |
| | 6 | .351 | .626 |
| 아이겐 | | 3.90 | 3.29 |
| 설명분산 | | 35.47 | 29.96 |
| 누적 | | 35.47 | 65.43 |
| 신뢰도 | | .890 | .854 |

=.989, TLI=.983, CFI=.989, RMSEA=.05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수용할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공연 자신감

공연 자신감에 대한 설문지는 Vealey²⁴⁾가 개발하고 ‘특성 스포츠 자신감 검사 (SSCI: confidence inventory)’를 근거로 이효민, 김선정,²⁵⁾ 정세진²⁶⁾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주제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이 설문문항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와 같이 .40이하의 공통성을 보인 3문항이 삭제되어 7문항이 추출되었다. 누적분산

21) Vallerand, R. J., Blanchard, C. M., Mageau, G. A., Koestner, R., Ratelle, Leonard, M., Gagne, M., & Marsolais, J. (2003). Les passion de l'ame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4), pp. 756-767.

22) 강영국(2010), 대학운동선수의 열정과 운동정서 및 생활만족과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3) 전예화(2012), 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열정과 정서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표 4〉 공연자신감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 요인 | 문항 | 요인1 | 요인2 |
|-------|----|-------|-------|
| 공연자신감 | 3 | .785 | .089 |
| | 2 | .735 | .271 |
| | 4 | .727 | .333 |
| | 1 | .679 | .364 |
| 활동자신감 | 9 | .143 | .797 |
| | 10 | .257 | .745 |
| | 8 | .356 | .699 |
| 아이겐 | | 2.35 | 2.00 |
| 설명분산 | | 33.70 | 28.62 |
| 누적 | | 33.70 | 62.32 |
| 신뢰도 | | .780 | .705 |

율은 62.3%, α 값은 공연자신감 .780, 활동자신감 .705로 양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선택된 각 측정항목들에 대한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X^2=19.800(df=8, p=.011)$, $RMR=.017$, $NFI=.969$, $RFI=.942$, $GFI=.981$, $IFI=.981$, $TLI=.965$, $CFI=.981$, $RMSEA=.068$ 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수용할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측정모델 분석

각 변인간의 측정모델 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구성개념 신뢰도는 대인관리(.800), 훈련관리(.781), 생활관리(.694), 조화열정(.896), 강박열정(.848) 공연자신감(.827), 활동자신감(.806)의 수치로 생활관리를 제외한 모든 0.7 이상의 수치를 나타나 집중타당도는 확보하였다고 판단

24) Vealey, R. S.(1986). Conceptualization of sport-confidence and competitive: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Psychology*, 8, pp. 221-246.

25) 이효민, 김선정(2009), 무용전공 대학생의 전문화수준이 무용자신감과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1(1), pp. 169-189.

26) 정세진(2009), 대학무용수의 성취목표성향이 무용수행 만족도와 무용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표 5〉 측정모델 요인분석결과

| 요인 | 항목 | 요인 부하량 | 오차 분산 | 개념 신뢰도 | 분산 추출지수 |
|-------|-----|--------|-------|--------|---------|
| 대인관리 | C1 | .964 | .041 | .800 | .808 |
| | C7 | .728 | .304 | | |
| 훈련관리 | C3 | .667 | .378 | .781 | .544 |
| | C6 | .684 | .467 | | |
| | C4 | .703 | .331 | | |
| 생활관리 | C5 | .949 | .102 | .694 | .543 |
| | C9 | .608 | .966 | | |
| 조화열정 | D1 | .828 | .197 | .896 | .742 |
| | D2 | .817 | .218 | | |
| | D3 | .777 | .264 | | |
| 강박열정 | D8 | .812 | .408 | .848 | .650 |
| | D9 | .855 | .287 | | |
| | D10 | .824 | .417 | | |
| 공연자신감 | H1 | .834 | .166 | .827 | .707 |
| | H2 | .681 | .312 | | |
| 활동자신감 | H7 | .738 | .273 | .806 | .676 |
| | H8 | .764 | .267 | | |

할 수 있다. 생활관리는 수렴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인 개별 요인에 대한 요인 부하량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판별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Fornell과 Larcker(1981)가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표 6〉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공연자신감과 활동자신감간의 .600의 제공값 0.36보다 평균분산추출값(AVE)이 크면 판별타당성은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모든 변수들이 기준값인 0.36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판별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절차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자기관리, 무용열정 및 공연자신감의 구조적인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들은 2012년 11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다. 또한 설문작성을 실시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을 연구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직접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작성이 끝난 직후 바로 수거하였다.

4. 자료처리방법

수집된 자료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첫째, 빈도분석과 척도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이 실시되었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문항에 대하여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연구모델의 적합도 및 개별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분산 구조분석이 실시되었다.

Ⅲ. 결과

1.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4개의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의 수준 및 방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6>과 같다. 상관관계분석은 가설 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모든 연구가설에 사용되는 측정변수들 간 관계의 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수들 간 관련성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해주며, 측

www.kci.go.kr

〈표 6〉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 | M | SD | 1 | 2 | 3 | 4 | 5 | 6 | 7 |
|-------|------|-----|--------|--------|--------|--------|--------|--------|---|
| 대인관리 | 3.70 | .66 | 1 | | | | | | |
| 훈련관리 | 3.14 | .69 | .380** | 1 | | | | | |
| 생활관리 | 2.94 | .75 | .185** | .231** | 1 | | | | |
| 공연자신감 | 3.16 | .61 | .384** | .404** | .176** | 1 | | | |
| 활동자신감 | 3.12 | .63 | .363** | .454** | .191** | .600** | 1 | | |
| 강박열정 | 3.07 | .83 | .233** | .489** | .117* | .337** | .402** | 1 | |
| 조화열정 | 3.66 | .65 | .558** | .511** | .055 | .458** | .471** | .510** | 1 |

1. 대인관리 2. 훈련관리 3. 생활관리 4. 공연자신감 5. 활동자신감 6. 강박열정 7. 조화열정

정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이용한다.²⁷⁾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인관리(3.70±.66)가 평균이 제일 높으며, 그 다음 훈련관리(3.14±.69), 생활관리(2.94±.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연자신감(3.16±.61)이 활동자신감(3.12±.63)에 비해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화열정(3.66±.65)이 강박열정(3.07±.83)에 비해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간의 관계가 .117-.600까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본 연구의 가설 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자기관리, 무용열정, 공연자신감의 연구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적합도는 카이자승(X^2), 표준카이자승(X^2/df), 기초부합지수(GFI), 조정부합지수(AGFI),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MSEA), 비교부합지수(CFI) 등의 정합지수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적합도 지수가 $X^2=153.076(df=99, p=.000)$, RMR=.029, NFI=.935 RFI=.911 GFI=.948, IFI=.976, TLI=.967, CFI=.976, RMSEA=.041로 나타났다. 이는 김계수²⁸⁾가 제시한 NFI, RFI, IFI, TLI, CFI가

27) 송지준(2011), 서비스산업 종사원의 감정부조화, 소진, 조직몰입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지』 13(2), pp. 103-123.

〈표 7〉 연구모형의 적합도

| | X ² (df) | RMR | NFI | RFI | GFI | IFI | TLI | CFI | RMSEA |
|-----------|---------------------|------|------|------|------|------|------|------|-------|
| 적합도 지수 | 153.076 (99) | .029 | .935 | .911 | .948 | .976 | .967 | .976 | .041 |
| 기준 | | <.5 | >.9 | >.9 | >.9 | >.9 | >.9 | >.9 | <.8 |

.80-.90이상, RMR이 .50-.60이하, RMSEA가 .08이하인 경우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는 기준을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인과관계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 대학생의 자기관리, 무용열정, 공연자신감의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표 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관리(대인관리, 훈련관리, 생활관리)는 무용열정의 하위요인(강박열정, 조화열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용전공 대학생의 자기관리를 높게 인식할수록 무용열정이 높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무용열정의 하위요인인 강박열정은 공연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화열정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용전공 대학생의 강박열정은 무용공연과 무용활동 자신감이 향상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자기관리의 하위요인(훈련관리, 생활관리)은 공연자신감과 활동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용전공 대학생의 훈련관리와 생활관리를 높게 인식할수록 공연자신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8) 김계수(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서울: 한나래 출판사).

〈표 8〉 연구가설 검증 결과

| 경로 | 표준화 | 비표준화 | SE | t | p | 결과 |
|--------------|-------|-------|------|-------|------|----|
| 대인관리 → 강박열정 | .211 | .278 | .151 | 2.262 | .024 | 채택 |
| 대인관리 → 조화열정 | .367 | .411 | .072 | 5.703 | .000 | 채택 |
| 훈련관리 → 강박열정 | .880 | 1.546 | .182 | 8.499 | .000 | 채택 |
| 훈련관리 → 조화열정 | .586 | .718 | .100 | 7.197 | .000 | 채택 |
| 생활관리 → 강박열정 | .262 | .584 | .164 | 3.553 | .000 | 채택 |
| 생활관리 → 조화열정 | .291 | .452 | .107 | 4.213 | .000 | 채택 |
| 강박열정 → 공연자신감 | .368 | .242 | .091 | 2.674 | .007 | 채택 |
| 강박열정 → 활동자신감 | .479 | .290 | .106 | 2.748 | .006 | 채택 |
| 조화열정 → 공연자신감 | .032 | .030 | .108 | .280 | .780 | 기각 |
| 조화열정 → 활동자신감 | .139 | .120 | .113 | 1.070 | .285 | 기각 |
| 대인관리 → 공연자신감 | .183 | .063 | .089 | .707 | .480 | 기각 |
| 대인관리 → 활동자신감 | .158 | .153 | .101 | 1.526 | .127 | 기각 |
| 훈련관리 → 공연자신감 | .935 | 1.080 | .219 | 4.920 | .000 | 채택 |
| 훈련관리 → 활동자신감 | 1.296 | 1.377 | .277 | 4.966 | .000 | 채택 |
| 생활관리 → 공연자신감 | .208 | .328 | .153 | 2.149 | .032 | 채택 |
| 생활관리 → 활동자신감 | .253 | .369 | .159 | 2.322 | .020 | 채택 |

IV. 논의

본 연구는 무용전공 대학생의 자기관리, 무용열정, 공연자신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무용전공 대학생의 자기관리는 무용열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관리의 하위요인 대인관리, 훈련관리, 생활관리는 무용열정의 하위요인 강박열정, 조화열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리, 훈련관리, 생활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는 대학무용 전공학생들은 무용에 대한 강박열정, 조화열정의 수준이 긍정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자신의 기량과 무용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 동작수행의 완벽함을 이루어나 가며, 학교생활이나 연습과정에서 동료들이나 선, 후배의 대인관계의 원만한 형성과 그리고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의 자기관리가 무용의 열정과 매우 밀접한

www.kci.go.kr

관련이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동숙²⁹⁾은 자기관리가 무용열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이동철은³⁰⁾ 태권도 선수들의 자기관리 중 훈련 관리는 조화열정에 대인관리는 강박열정과 조화열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김영운³¹⁾은 하키선수의 자기관리가 자신감과 경기력에 관한 연구에서 하키선수들의 자기관리는 자신감에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영모³²⁾는 자기관리와 열정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훈련관리를 통하여 자기 내면에서 열정이 생기게 된다고 보고하여 자기관리가 열정형성에 강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무용은 자신의 신체를 매개체로 사상과 감정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예술로서 무대에서 완벽한 무용동작의 표현에 따라 개인적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무용전공 학생들은 표현의 수단이 되는 신체와 동작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과 꾸준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무용전공 대학생들은 공연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평소에 느끼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간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무용경력은 6년미만 175명(54.3%), 10년 미만 103명(32%), 15년 미만 34명(10.6%), 15년 이상 10명(3.1%)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무용에 입문하여 대학교에 오기까지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달성을 위한 자기관리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자기관리는 특히 적극적인 무용 수행과 무용 활동을 뒷

29) 이동숙(2011), 무용열정의 심리적 개념구조: 한국무용 전공인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p. 88.

30) 이동철(2012), 태권도 선수의 자기관리 전략이 열정과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p. 48.

31) 김영운(2010), 하키선수의 자기관리가 자신감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0, p. 858.

32) 이영모(2012), 대학 태권도 선수의 자기관리 전략이 운동열정, 운동정서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p. 61.

받침해 주는 열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소희³³⁾는 학생들에게 열정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필수요인이며, 좌절과 아픔에 직면하는 인간의 내면성에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배려, 또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무용분야에서 동작수행의 고난이도 테크닉의 습득에 한정된 교육의 목적이 아닌 그 안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일으켜주는 것이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열정은 무용전공 대학생들이 무용을 수행하는데 있어 원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특히 끊임없는 훈련과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형성 및 규칙적이고 차별화된 전반적인 생활의 관리는 무용전공 학생들 개인의 무용에 대한 열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무용전공 대학생들에게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고 무용에 대한 열정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자기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열정은 공연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용열정의 하위요인 강박열정은 공연자신감의 하위요인 공연자신감, 활동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화열정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무용열정 중 강박열정을 갖고 있는 학생일수록 자신이 좋아하는 무용수행을 함으로서 공연자신감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는 강박열정(obsessive passion)은 개인을 특정 활동으로 밀어붙이는 동기적 힘과 관련되어 있으며, 강박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은 비록 그 운동을 좋아할지라도 그들이 조종하는 내부적 힘으로 인해 강제로 활동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보고하여,³⁴⁾ 부정적인 요인으로 강조하였다. 하지만 본

33) 김소희(2004), 교육의 새로운 지평으로서 열정체험 연구, 『교육학연구』 42(4), p.146.

34) Vallerand, R. J., Blanchard, C. M., Mageau, G A., Koestner, R., Ratelle, Leonard, M., Gagne, M., & Marsolais, J.(2003). Les passion de lame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4), pp. 756-767.

연구의 결과는 무용전공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다른 연구대상자들과는 차별화된 부분으로서 공연을 자주 수행해야 하는 특성상 조화열정보다는 강박열정이 때로는 훈련과정 속에서 지치고 힘든 상황을 유지해 갈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강박열정이 내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강요하는 부정적인 심리상태일지라도, 무용수행에 시초에서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용공연 자신감과 무용활동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Wang 등³⁵⁾에 의하면 강박열정은 조화열정보다 긍정 정서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유진, 정꽃님³⁶⁾의 연구에서 무용수행 활동에 있어서 외부적 통제조건이나 심리적 압박에 의해 선택의 여지없이 강한 부담감으로 수행해야 하는 강박열정이 자율성으로 선택하게 되는 조화열정에 비해 강하게 연습요인을 뒷받침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김석일³⁷⁾은 열정은 심리적 만족에 의한 결과로 생성된 것인 만큼 열정이 높은 사람은 높은 수준의 긍정적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진, 김화경, 정꽃님³⁸⁾은 무용열정의 하위요인인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이 긍정정서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강박열정은 부정정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검증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한편 전예화³⁹⁾는 무용전공 대학生の 무용열정과 정서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무용전공 대학生の 강박열정, 조화열정은 긍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35) Wang, C.K.J., A. Khoo, W. C. Liu, & S.(2008), Divaharan Passion and Intrinsic Motivation in Digital Gaming. *Cyber Psychology & Behavior*, 11(1), 39-45.

36) 유진, 정꽃님(2008), 무용열정의 이원론적 모형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1), p. 172.

37) 김석일(2009), 생활체육참여자의 목표성향에 따른 열정과 끈기,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4), p. 72.

38) 유진, 김화경, 정꽃님(2009),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무용열정에 따른 정서변화, 『한국무용과학회지』 19, p. 10.

39) 전예화(2012), 무용전공 대학生の 무용열정과 정서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p. 49.

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정서란 정열적인 감정을 나타내거나 열광적, 적극적이며 긍정적 정서가 강한사람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완전히 몰두하는 감정을 느낀다고 정의하였다.⁴⁰⁾ 이러한 긍정적 정서의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열정은 무용전공 대학생들이 무용을 수행하는데 있어 원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열정을 가지고 무용을 하는 무용수는 항상 도전과 개인적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목표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만족과 심리적인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곧 자신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무용을 수행하는 학생들은 무용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기량을 높이는데 있어 강박열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무용수행에 임하도록 하여 무용공연, 무용활동 자신감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무용전공 대학생의 자기관리가 공연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관리의 하위요인 훈련관리, 생활관리가 공연자신감의 하위요인 공연자신감, 활동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자기관리는 공연상황이나 무용활동 수행시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서 공연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자신의 기량과 무용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 동작수행의 완벽함을 이루어나가며,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의 자기관리가 공연자신감을 향상시킨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진, 한시완⁴¹⁾은 무용수행과 자기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통하여 무용수에게 있어서 자기관리가 자신의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확인되었으며,

40) Watson, D. (1988), Intra-individual and inter-individual analys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ir relation to health complaint, perceives stress, and daily activ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pp. 1020-1030.

41) 유진, 한시완(2007), 무용수자기조절 전략의 역동성,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8(3), p. 11.

성공적인 무대수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자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한 노정식, 홍혜전⁴²⁾은 무용전공 대학생의 자기관리가 완벽성향과 공연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관리가 철저할수록 공연몰입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한편 권영균, 이동현, 이지향⁴³⁾은 무용전공자의 자기관리, 신체적 자기지각, 공연자신감의 인과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관리는 공연자신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자기지각을 통해 공연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으며, 정소연⁴⁴⁾은 무용수의 자기관리가 높을수록 공연성패 지수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외의 스포츠 상황에서도 조현익, 윤병민, 소영호⁴⁵⁾는 고교 볼링선수의 자기관리가 자신감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의 예측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본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대인관리는 공연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사회의 개인주의 성향에 따른 결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활관리와 개인연습의 훈련관리는 개인주의의 측면에서 타인간의 관계형성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반면에 대인관리는 소홀하게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스포츠 활동과 달리 무용분야의 무용수들은 다양한 표현 및 관객과의 소통 그리고 공연 만족도와 개인 스스로의 예술적 만족도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는 무용수일지라도 공연수행 시에 실수로 인하여 공연을 실패로 이끄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감 상승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

42) 노정식, 홍혜전(2011), 무용전공 대학생의 자기관리가 완벽성향과 공연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24(1), p. 13.

43) 권영균, 이동현, 이지향(2010), 무용전공자의 자기관리와 신체적 자기지각 및 공연자신감 구조모형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49(6), p. 157.

44) 정소연(2006), 프로무용수의 자기관리 인식에 따른 공연성패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p. 35.

45) 조현익, 윤병민, 소영호(2008), 고교 볼링선수의 자기관리가 자신감 및 경쟁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4), p. 28.

기 때문에⁴⁶⁾ 무용전공 학생들이 최상의 잠재력과 무용수행 능력개발 및 무용공연 자신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연습의 훈련을 철저히 실시하고 규칙적이고 차별화된 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기관리는 무용열정과 무용공연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혀냈다. 즉, 세 변인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무용공연 수행 시 무용수들의 순간적인 찰나에 자신의 기량과 완벽한 움직임을 통한 공연수행에 필요한 자신감 향상은 자기관리뿐만 아니라 무용열정을 지니는 것을 중요하게 인지하면서 자기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무용전공 학생들이 최상의 잠재력과 무용수행 능력개발 및 무용공연 자신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연습의 훈련을 철저히 실시하고 규칙적이고 차별화된 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자기관리, 무용열정, 공연자신감의 관계를 규명하여 학생들 개인의 체계적인 자기관리 향상은 물론 공연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5일 부터 12월 7일 까지 전국 4년제 대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1-4학년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표집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였다. 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중 신뢰도가 낮은 28부를 제외하고 322부가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46) 허정훈, 김병준, 유진(2011), 대학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 전략: 평소연습과 시합상황의 비교, 『한국체육학회지』 40(1), p. 194.

첫째, 자기관리의 하위요인인 대인관리, 훈련관리, 생활관리는 무용열정의 하위요인 강박열정, 조화열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용열정의 하위요인 강박열정은 무용공연자신감의 하위요인 무용활동 자신감과 무용공연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관리의 하위요인인 훈련관리와 생활관리는 무용공연 자신감의 하위요인인 무용활동 자신감과 무용공연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자기관리, 무용열정, 공연자신감의 관계를 규명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이루어져야 할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관리, 무용열정, 공연자신감의 변인은 개인의 성향과 특성,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 학생들의 성별이나, 참여 장르, 참여기간에 따른 변인들 간의 효과를 검증하는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무용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관리와 자신감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연구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실증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공연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자와 학생간의 관련성을 확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계수(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출판사.

김소희(2004). 교육의 새로운 지평으로서 열정체험 연구. 『교육학연구』, 2(4): 131-159.

김석일(2009). 생활체육참여자의 목표성향에 따른 열정과 끈기.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4): 61-76.

김영미, 김양근(2010). 부모의 기대와 경제적 지원이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무용수행능력과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22(1): 1-20.

김은진(2013). 무용전공고등학생들의 무용열정수준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관리.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혜정(2011), 무용전공 대학생들에 신명경험이 무용열정과 자기결정성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길진영(2012), 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학생들의 자기관리와 학습몰입과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권영균(2010). 무용전공자의 자기관리와 신체적 자가지각과 자기관리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영운(2010). 하키선수의 자기관리가 자신감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 회체육학회지』, 40: 853-861.
- 강영국(2010). 대학운동 선수의 열정과 운동정서 및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체육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권영훈, 이동현, 이지향(2010). 무용전공자의 자기관리와 신체적 자가지각 및 공연자신감 구조모형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49(6): 149-160.
- 노정식(2010), 무용수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관리, 공연불안 및 공연몰입의 관계.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노정식, 홍혜전(2011). 무용전공 대학생의 자기관리가 완벽성향과 공연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24(1):1-18.
- 남초아(2011), 무용전공자의 신체상이 열정과 정서상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문한식, 박진성(2008). 양궁선수들의 자기관리와 자신감과의 관계. 한국스포츠 심리학회, 19(1): 19-32.
- 박세미(2011), 대학생들의 무용 멘토링이 무용열정과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송지준(2011). 서비스산업 종사원의 감정부조화, 소진, 조직몰입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지』, 13(2): 103-123.
- 이보슬(2011), 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의 성공과 실패 지각요인탐색. 『예술교육연구』, 9(3): 45-67.
- 이영모(2012). 대학 태권도 선수의 자기관리 전략이 운동열정, 운동정서 인지된

-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영환(2009). 체육계열 지망생의 성취목표 성향이 자기관리와 스포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동철(2012). 태권도 선수의 자기관리 전략이 열정과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동숙(2011). 무용열정의 심리적 개념구조: 한국무용 전공인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효민, 김선정(2009). 무용전공 대학생의 전문화수준이 무용자신감과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1(1): 169-189.
- 임낙철, 김석일(2009). 지체장애선수의 정서, 열정, 시합전략. 『한국체육학회지』, 20(4): 111-127.
- 유진, 정꽃님(2008). 무용열정의 이원론적 모형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1): 163-175.
- 유진, 김화경, 정꽃님(2009).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무용열정에 따른 정서변화. 『한국무용과학회지』, 19: 1-15.
- 유진, 한시완(2007). 무용수자기조절 전략의 역동성.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8(3): 165-197.
- 정소연(2006). 프로무용수위 자기관리 인식에 따른 공연성패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정세진(2009). 대학무용수의 성취목표성향이 무용수행 만족도와 무용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장귀옥(2002). 무용수들의 신체적 자기-지각과 정신건강 프로파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조현익, 윤병민, 소영호(2008). 고교 볼링선수의 자기관리가 자신감 및 경쟁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4): 21-34.
- 전예화(2012). 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열정과 정서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최청자, 김형남, 심현화(2012). 무용심리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무용전공대학생의 자기관리 및 심리기술 효과. *한국무용과학회지*, 26(1): 51-68.
- 한태준(2008). 레슬링선수의 성취목표지향성, 자기관리 및 스포츠자신감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4): 35-52.
- 허용, 손준호, 정찬수(2011). 대학씨름선수의 자기관리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코칭능력개발지*』, 13(2): 23-30.
- 허정훈, 유진(2004).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기관리 전략: 질적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5(3): 27-52.
- 허정훈, 김병준, 유진(2011). 대학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 전략: 평소연습과 시험상황의 비교. 『*한국체육학회지*』, 40(1): 187-198.
- Karoly, P.(1980). Person variable in therapeutic chance and development. In P. Karoly, & J. J. Steffen(Eds.), *Improving the long-term effect of psychotherapy*(pp. 195-261). New York: Gardner Press.
- Vallerand, R, J., Blanchard, C. M., Mageau, G A., Koestner, R., Ratelle, Leonard., M., Gagne, M., & Marsolais, J.(2003). Les passion de lame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4), 756-767.
- Vealey, R. S.(1986). Conceptualization of sport-confidence and competitive: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Psychology*, 8: 221-246.
- Wang , C.K.J., A. Khoo, W. C. Liu, & S. (2008). Divaharan Passion and Intrinsic Motivation in Digital Gaming. *Cyber Psychology & Behavior*, 11(1): 39-45.
- Watson, D. (1988). Intra-individual and inter-individual analys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ur relation to health complaint, perceives stress, and daily activ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20-1030.
- 문훈숙(2012.8.24). 무용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경제, MK뉴스.
- 성진혁(2013.3.18). 2년 공백 완벽히 떨친 비결은, 조선일보.

안현주(2012.7.5). 광주예고 이도희, 국제무용대회 최연소 입상, NEWSis,
최민우(2013.4.11). 20세기를 빛낸 발레리나 톱10, 중앙일보, 뉴스클립.

| | | | |
|-------|-------|----|-----|
| 논문투고일 | 2013년 | 4월 | 15일 |
| 심사일 | | 4월 | 25일 |
| 심사완료일 | | 5월 | 2일 |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management, Dancing passion and Dance Performance Confidence in University Dance Students.

Choi, Jae-Hee · Lee, Hwa-Suk
Adjunct professor, Professor of Da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d the relationships among self-management, dancing passion, and dance performance confidence in university dance students. The subject was a population of 350 university dance students during the period of time November 5, 2012 to December 7, 2012. The data on 322 students were used for actual analyses were processed with SPSS 18.0 and AMOS 18.0.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self-management had positive effects on dancing passion. Second, dancing passion had positive effects on dance performance confidence. Third, self-management had positive effects on dance performance confidence.

keywords: University Dance Students(대학무용 전공학생), Self-Management(자기관리), Dancing Passion(무용열정), Dance Performance Confidence(무용공연자신감), Dance education(무용교육)